

미래엔과 동아일보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22 | 2018년 8월호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새싹이 자란다... 우리도 자란다

※ 이 사례는 유호선 세종 두루중 학생부 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두루중은 2015년에 개교한 신설 학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전입생들이 많아 학생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매우 다양하지요. 이에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텃밭에 작물을 심는 '텃밭 가꾸기' △학교 교사와 임원, 학부모가 학생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등굣길 하이파이브 캠페인' △학생과 교사가 밥을 먹으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한 끼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흘리는 땀만큼 돈독해지는 교우·사제관계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스포츠 활동'입니다. 스포츠 활동은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이뤄집니다. 주로 학교 근처에 있는 인조 잔디 구장에서 풋살이나 야구를 하지요.

가끔은 클라이밍 센터를 방문해 전문가로부터 클라이밍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우애가 특히 돋보입니다. 친구가 암벽에 오르기 시작하면 밑에서 대기하는 학생들이 열띤

응원을 보내고, 응원에 힘입은 친구는 목표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암벽을 등반하지요. 그리고 암벽에서 내려와 응원을 보내준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눕니다. 친구들끼리 용기를 북돋아주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풋살, 야구와 같은 단체 경기는 돈독한 사제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경기 룰에 맞춰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다보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제 간의 우정이 하나 둘 쌓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진 팀이 산 간식을 나눠 먹으며 친구나 학업에 대한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요.

텃밭 위 새싹과 함께 성장하다

학교 주변에 조성된 텃밭을 활용해 농작물을 가꾸는 ‘텃밭 가꾸기’ 활동 역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주변 텃밭에 묘목을 심을 거야”라고 안내했을 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학생들이 공동 묘목이나 상추,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직접 심어보면서 활동에 굉장한 흥미를 보입니다.

학생들은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날로 성장합니다. 활동시간 외에도 수시로 텃밭에 들러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핍니다. 다 자란 상추나 방울토마토는 점심메뉴가 되기도 해 수확하는 즐거움이 큼니다. 그리고 이 뿌듯한 경험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합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던 학생이 제게 먼저 다가와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의견을 적극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충북 삼성중 수업연구회 ‘삼성 마을탐구생활’

교과서 속 지식, 우리 마을에서 찾아요



수업기획을 위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는 ‘삼성 마을탐구생활’ 교사들. 삼성중 제공

실생활과 유리되고,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 쉬운 주입식 교육의 딜레마는 모든 교사들이 고민하는 문제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 삼성중 교사 15명이 모여 수업연구회 ‘삼성 마을탐구생활’을 꾸렸다. 이 연구회는 ‘마을’을 소재로 교과서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운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것. 삼성 마을탐구생활 소속 김은선 교사로부터 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실용성과 재미 더하는 ‘마을 수업’

‘삼성 마을탐구생활’은 교과·단원별 성취기준을 만족시키면서도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소재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한다. 이를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모여, 각 교과목의 이론지식과 맞닿아 있는 마을 내 문제를 찾아 수업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마을수업 프로젝트’. 마을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학생들의 생활환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인 동시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가령 수학교과에서는 ‘ $y=ax+b$ ’라는 공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삼성면 마을에 지을 시설’이라는 주제를 활용한다. y 값은 시설의 건축비용으로, 변환 값 ax 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 땅값으로, 상수항 b 는 고정된 건축 재료비로 설정한다. 학생들은 직접 마을 내 부동산 자료를 수집해 평균 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변환값과 고정값의 의미를 이해한다.

김 교사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학생들도 이론을 실생활에 응용해

보며 그 효용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과목 간 연계 수업으로 효과 극대화

마을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 간 연계 수업과 두 명의 교사가 뭉쳐 하나의 교실을 이끄는 ‘코티칭’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수시로 상의하며 교과내용이 접목되는 부분을 찾아내 수업을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사회교과의 ‘지리정보와 공간적 의사결정’ 단원 수업에는 기술 교사가 함께 참여했다. 사회교사가 학생과 함께 건축물을 지을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면, 기술교사는 어떤 건축 자재와 방법을 적용해 건물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다루는 식이다.

김 교사는 “각 교사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깊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마을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과목 간 순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업 커리큘럼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